

디지털 암흑시대: 전자기록은 영원한가?

- 설문원, 김연정, 천권주(2006). 「ISO/TR 18492의 전자기록 장기보존 전략」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이슈페이퍼 2 -

이 소 연*

“디지털은 영원하다.” 얼핏 들으면 그러려니 싶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사실과 먼 진술을 찾기도 힘들다. 디지털의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가 휘발성으로, 한낱 종이장보다도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 학창시절 어느 오후 수업시간에, 꽃가루가紛紛히 날리는 창가에 앉아 졸음을 피하려고 단짝 친구한테 보낸 쪽지편지는 (누군가가 일부러 버리는 수고를 행하지 않았다면) 이사 다니면서 끌고 다닌 상자 중의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불과 십년 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보냈을 이메일은, 첫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일부러 어떻게 하지 않으면 둔 자리에 남아 있을 종이기록과는 달리 전자기록은 일부러 어떻게 하지 않

* 한국여성개발원 정보협력연구원 연구위원

으면 기필코 사라져 버리고야 말 것이다. 바야흐로 디지털 암흑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렇다면 전자기록을 포함하여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인류의 지적 표현물을 어떻게 해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즈음 디지털 매체에 대해서는 영구보존(permanent preservation) 대신 장기보존(long-term preserv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 된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쉬운 과업이 아니다. 보존은 간행물의 경우보다 기록에 있어서 더 중요할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기록학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화두는 없다. 2005년 10월 「전자문서기반 정보」¹⁾의 장기적 보존 Long-term preservation of electronic document-based information」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ISO 표준 18492는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되었다. 그리고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발 빠르게 움직여, 불과 5개월의 시차를 두고 지난 3월 이 표준을 국내 기록학 연구자들에게 소개하는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였다. 지난 해 말, 「기록관리시스템의 투자대비효과(ROI) 분석방법」이라는 첫 호를 잇는 두 번째 이슈페이퍼이다. ISO 18492에 대한 이슈페이퍼는 기록학 분야의 주요 연구동향 및 과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시의적절한 기획이라고 하겠다.

ISO 18492의 서문은 진본 전자문서기반 정보의 장기적 보존은 기록학, 문서관리, 전자상거래, 전자 거버넌스와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영역이라고 전제하고,

1) 이 표준은 전자문서기반 정보(document-based information)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로 정의하고, 이미지, 텍스트,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뷰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전략개발과 최선의 실무를 위한 분명한 개념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를 개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표준을 개발한 의도가 최소한의 개념들을 개발하는데 있다는 점을 심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표준이 현재 담고 있는 내용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빈약하다. ISO의 다른 표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기본 구성요소인 용어 및 약어 등을 제외하면, 다음이 세 가지 내용을 총 13면의 본문에서 지극히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장기보존의 개요를 설명하고, 매체갱신, 메타데이터, 매체이전(migration) 등 보존의 기술적 전략을 간략히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정책, 품질관리, 보안, 환경통제와 모니터링 등 장기보존 전략 개발을 다룬 것이 전부이다. 최근의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전략의 가능성이 실험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제까지의 성과가 아직 당장 현장에서의 실무를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그 이유라고 짐작된다.

이러한 내용의 빈약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연구원의 이슈페이퍼는 이 표준이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주요내용과 함께 ISO/TR 18492의 의의와 개발과정을 소개한 개요를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 ISO 14892의 부록인 ‘국가 전자기록관리 프로그램 및 기타 출판물’과 함께 장기보존의 기술적 전략을 소개한 내용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국제적 논의에서의 최소한의 합의 사항만을 담게 되어 있는 국제표준의 간략한 내용을 보충하도록 안내하였다. 국제적인 주요 간행물에 최소한의 시차를 두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이슈페이퍼의 한계를 가능한 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ISO 18492도, 이 표준을 국가기록연구원의 이슈페이퍼도 전자 기록의 장기적 보존이라는 화두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대한 대응의 시작점으로서의 의의만을 가질 뿐이다. 국제표준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논의의 정수라는 국제표준의 의의와 함께 최소한의 논의만을 압축된 언어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한계도 갖는다. 표준이 제시하는 문제의식을 심분 공유하되 거기 그치지 않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더 심층적이고 넓은 차원에서 연구와 실천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기록학계의 과제가 될 것이다.